

서울 중구

이효리 신곡 '후디에 반바지' 음원차트 합한 진격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 '핑클'은 1997년 SM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3인조 걸그룹 'S.E.S.'에 대항하고자 대성기획(현 DSP미디어)이 기획했다.

1998년 1집 앨범 'Blue rain'으로 데뷔해 SBS 인기가요에서 2위로 주목받은 뒤 '내 남자친구에게' '루비' '영원한 사랑' 'NOW' 등 다양한 곡으로 공중파 가요 프로그램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국민 걸 그룹으로 떠올랐다.

이듬해 발표한 2집 'White'는 대박을 쳤다. 타이틀곡 '영원한 사랑'의 가사 중 한 구절인 '약속해줘~'는 전국적인 유행이 됐고 중고등학교 수련회 장기자랑 때면 자주 등장하는 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음악방송에서 1집 '내 남자친구에게'와 '루비'로 16번 1위, 2집 '영원한 사랑'과 '자존심'은 13관왕을 차지했고, 1999년 서울가요대상과 SBS 가요대전에서 대상을 받



는 등 데뷔 2년 만에 국내 가요계를 뒤흔들었다. 인기로 힘입어 핑클은 각종 광고와 다양한 예능에도 출연해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2000년 기존과는 180도 다른 색채를 띤 이미지로 변신해 3집 앨범 'Now'를 발매했다. 2001년에는 가수 해은이의 '당신은 모르실거야'를 리메이크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2002년 타이틀곡 '영원'이 담긴 4집 앨범

'call me in your heart ...can be my soul show you love again'을 마지막으로 그룹 활동을 접고 각 멤버가 흩어져 개별 활동에 들어갔다.

멤버 중 이효리는 서문여고 재학 중 레스틀링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다 기획사에 캐스팅됐다. 핑클로 데뷔해 리더를 맡아 뛰어난 노래 실력은 물론 털털함과 매력 있는 눈웃음으로 어필했다.

2003년 핑클 시절의 청순발랄 이미지를 깨고 섹시함을 앞세워 솔로 가수로 변신했다. 1집 타이틀곡 '10 Minutes'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SBS 가요대전, 서울가요대상, KBS 가요대상 1위를 휩쓸면서 가수 데뷔 6년 만에 그룹과 솔로로 모두 정상에 올랐다.

이후 'Get Ya' 'U-Go-Girl' 'Chitty Chitty Bang Bang' 'Bad Girls' '미스코리아' 등을 발매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2008년 'U-Go-Girl'로 5관왕, 2010년

'Chitty Chitty Bang Bang'으로 3관왕에 오르며 2000년대와 2010년대 모두 1위를 차지한 솔로 가수가 됐다.

예능 활동도 활발해 SBS '패밀리가 떴다', KBS2 '해피투게더', MBC '놀면 뭐하니' 등에 출연했다. 특히 '놀면 뭐하니'에서 프로젝트 그룹인 '씩스리'의 리더로, '환불원정대'의 천옥으로 활동 중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다시 한번 누렸다.

밴드 '롤러코스터' 출신 기타리스트 이상순과의 결혼 소식이 화제였다. 2013년 9월 제주 별장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린 뒤 정식 부부가 된 이들은 제주도로 거처를 옮겨 활동을 잠시 쉬다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에 출연했고, 이효리는 정규 6집 'Black'을 발매하며 복귀했다.

2019년에는 14년 만에 핑클 완전체로 복귀해 콘서트와 신곡 '남아 있는 노래처럼'을 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이효리가 'Black' 발매 이후 약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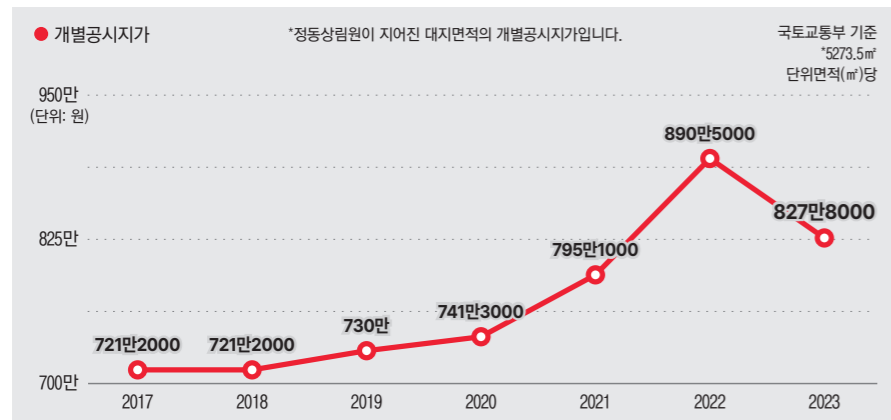
만에 디지털 싱글 '후디에 반바지'를 발매한다. 그간 자신만의 확실한 메시지가 담긴 곡과 파격적인 콘셉트는 물론 유아하면서도 당당한 매력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이효리가 신곡으로 전할 이야기에 관심이 간다.

소속사 안테나 측은 이효리의 신곡 발매 소식과 함께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무드 필름을 올렸다. 영상에는 곡명처럼 후디에 반바지를 입은 이효리가 등장한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공간, 무심하게 벽에 기대어 있는 이효리는 스모키 화장으로 시크한 카리스마를 발산해 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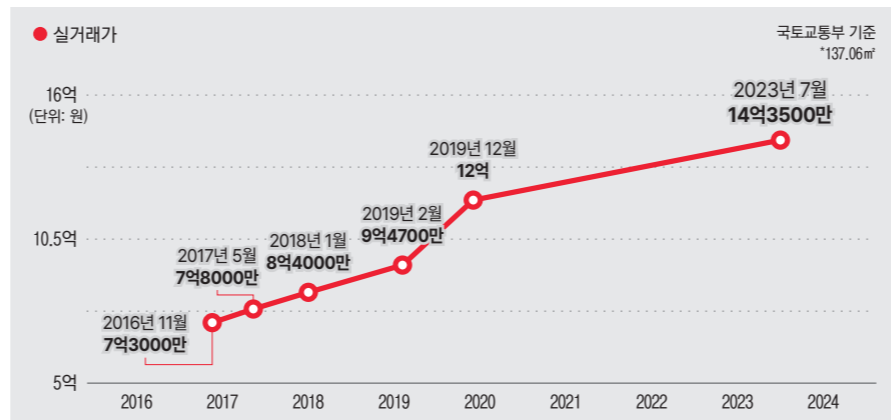
증을 일으킨다. 또 11일 iTheK(원더케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돼 기대감을 더했다. '후디에 반바지'는 오늘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한편 이효리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그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빌딩(사진) 한 동을 2022년 5월 대출 없이 37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52.25㎡(약 136.80평), 대지면적 204.5㎡(약 61.86평) 규모로 2019년 6월 준공됐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약수역 8번 출구에서 약 500m 거리에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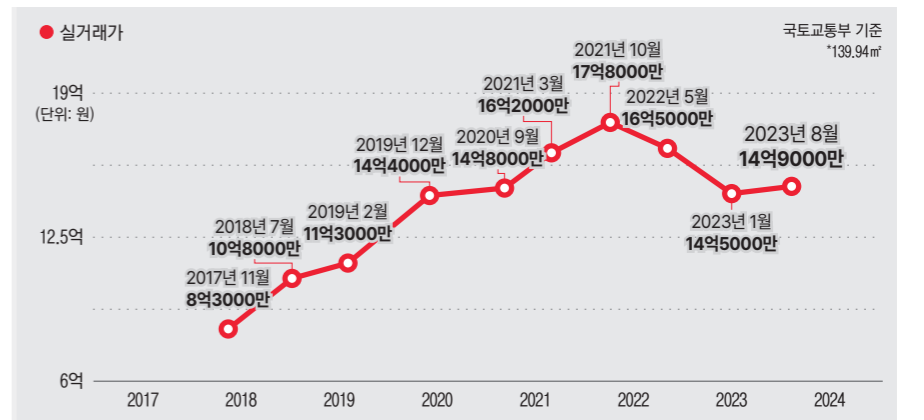
정동상림원(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서울(서울 중구)



남산타운(서울 중구)



홍성걸 현)국민대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도미니카공화국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정책자문관,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 및 연구부회장,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자유한국당 비대위 가치정립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홍 교수는 보수주의 정치평론가로 현실 정치에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기로 유명하며 여러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일 발언과 관련해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나라 망신"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는 있다' 책을 집필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를 자세히 짚으면서 왜곡된 친일파 논란을 잠재우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를 시도했다.



최원혁 현)LX판토스 대표이사

성균관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한 최원혁 LX판토스 대표이사는 CJ대한통문 출신 국제물류 전문가로 CJ대한통문 물류 연구소 소장을 지내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2015년 6월까지 CJ대한통문 글로벌 부사장으로 해외사업을 이끌었으며 해외물류, 포워딩, 3PL, IT 통합 프로젝트 업무 등을 경험했다. 2015년 판토스(현 LX판토스)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을 거쳐 2015년 12월 부사장 대표이사, 2021년 5월 사장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성장상을 이끌며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제30회 물류의 날 기념식에서 화주의 글



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해외 진출기업 물류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77년 설립된 LX판토스는 전 세계 1만3000여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입 해상·항공 운송, 철도 운송, 창고·내륙 운송 등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우성 현)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는 서울대 공업화학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선경화학(현 SKC)에 입사했다. 1984년 한국바스프(BASF)로 자리를 옮겨 여러 직책을 맡다 2011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9월까지 회장직을 맡고 정년 퇴임했다. 신 대표는 2012년 코트라(KORTA) 창립 50주년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사단법인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회장을 겸임했다.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 회사는 1976년 페놀-아세트산 생산업체로 설립됐고 폴리카보네이트(PC) 등 고성능성 엔지니어링 플라



스틱(EP) 등의 소재인 BPA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그는 회사를 대표해 올 3월 2000억 원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 고액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 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1대1 상담 등 13, 14일 설명회

경기도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과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 신고가 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

설명회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도의 피해 지원 방안과 실질적인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경·공매 절차 상담 등이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

문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3월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대우건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528가구 일반 분양

대전 서구

대우건설은 이달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관저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인 계백지구 A1·A2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8개동·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소비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의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임대를 제외한 52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주변에 다양한 개발호재가 진행되고 있어 뛰어난 미래 가치가 돋보인다. 실제 단지 인근에는 약 160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1단계 개발이 완료된 도안신도시는 23단계 개발도 계획돼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에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까지 이어지는 철도 개발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투시도.

대우건설

계획으로 단지 인근에 있는 기존 가수원역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서대전C·계백로 등 대전 시내외로 이동이 편리한 교통 인프라 외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발계획 추진 등 교통개선이 기대되고 있어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원스톱 교육환경이 시선을 끈다. 누리울초·가수원초·누리울중·동방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도보권

에 있으며 학원 및 가수원 도서관도 가까이 우수한 문화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개방감과 채광 및 통풍을 높였으며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수변 가든·어린이 놀이터 등을 구성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 기준보다 많은 주차대수(A1블록은 가구당 1.33대, A2블록은 가구당 1.36대)를 확보하는 등 실생활의 편리함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